쇄신과 거리 먼 친이 일색… 계파갈등 극복 과제

■ 한나라 '안상수호' 출범 의미와 향후 전망

친정체제 구축 당·정·청 소통 청신호

여권내 권력 투쟁·재보선 대처 숙제로

14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지도부가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부터 정두언, 나경원, 안상수 대표, 서병수, 홍준표. /연합뉴스

한나라당이 집권 후반기 새 진용으로 친이(친이명박) 주류인 안상수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다.

14일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쇄신과 화합'의 화두와는 거리가 먼 지도부를 출범시켰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향후 정국에서 갈등과 분열의 극복이란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의미=14일 전당대회에서 안 대표를 비롯해 홍준표·나경원·정두언 최고위원 등 친이계 4명이 대거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친이 주류의 첫 당권 장악이다.

반면, 친박(친박근혜)계는 서병수 의원만이 턱걸이로 지도부에 들어가면서 2012년 총선 공천과 대선 경선 과정에서 또다시 계파 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호남권 주자였던 정두언·이성헌·김대식 후보 중 정 후보만 후보단일화의 영향으로 당선됐을 뿐 나머지 후보는 큰 지지를 받지 못해 한나라당의 지역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전망과 과제=친이 주류 색깔이 완연한 새 당 지도부의 탄생은 청와대 후속 개편과 개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친이 직계 인사들이 여권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당·정·청의 소통에는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안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현안이었던 미디어 관계법과 4대강 예산 등을 말끔히 처리, 이 대통령의 돈독한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친박과의 갈등 극복, 당의 변화와 쇄신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 패배에서 비롯된 변화의 기운이 새 당 지도부 구성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화합의 실마리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 대표가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로 비롯된 비선조직의 인사개입 논란에다 여권 내 권력암투설까지 여권 주류 내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

더욱이 당장 7·28 재·보선이라는 힘겨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1~2곳만 승리해도 본전치기여서 비록 여당에 부담이 크지 않은 선거지만 재·보선이 그동안 '여당의 무덤'이었던 전례를 감안하면 새 지도부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친이-친박 간 갈등 해소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전대 과정에서 안 대표가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간 화해의 '징검다리'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말처럼 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친박계가 이번 전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직 배분에서 친박 인사들을 중용할 가능성이 크다.

쇄신과 변화의 당내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도 안 대표 체제가 풀어야할 일이다.

여야 관계를 원만히 해야하는 것도 안 대표 몫이다. 야당에서는 강경한 안 대표의 선출로 여야 관계가 껄끄러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여권 비선조직의 인사개입 등을 놓고 민주당 지도부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설정해 나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대표·최고위원 프로필

'박종철 고문 사건' 파헤친 4선

안상수 대표

한나라당 안상수 신임 대표는 친이계(친이명박) 주류를 대표하는 4선 의원으로서 원대대표를 두 차례 역임했고,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 대표는 9년차 검사 시절인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이름을 알렸고, 인권변호사를 거쳐 15대 총선 때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어 17대 대선 당시 당내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장,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안 대표는 야당의 'MB악법 저지' 공세를 뚫고 미디어법, 4대강 사업 예산안 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하는 돌파력을 보였다.

▲경남 마산(64) ▲서울대 법대 ▲서울·춘천지검 검사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15·16·17·18대 의원 ▲한나라당·원내대표

◇홍준표 최고위원

▲경남 창녕(56) ▲고려대 법학과 ▲서울·광주지검 검사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원내대표 ▲15·16·17·18대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운영위원장

◇나경원 최고위원

▲서울(47) ▲서울대 법대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한나라당 대변인▲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 ▲17·18대 국회의원

◇정두언 최고위원

▲서울(53) ▲서울대 무역학과 ▲국무총리 공보비서관 ▲한나라당 대변인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 비서실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17·18대 의원

◇서병수 최고위원

▲울산(58) ▲서강대 경제학과 ▲동부산대학 겸임교수 ▲민선 해운대구청장 ▲16·17·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총무·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지원 "영포대군은 집안단속해야"

〈이상득 의원〉

민주 국조·특검 도입 주장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로 촉발된 '영포게이트' 와 관련,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을 주장하는 등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영포게이트' 배후와 관련, 이상득 의원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원내대표단, 4대강특위 연석회의에서 "이명박 정권 들어 국정을 농단하는 비선 사조직이 발호하는 상황에 대해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특위를 확대 구성하고 전 상임위 차원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영포 이슈'를 7·28 재보선 이후까지 끌고 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영포 게이트와 관련, 민주당 전략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상득 의원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이끌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득 의원을 '영포대군'으로 칭하며 "영포대군은 집안 단속해야지 야당 원내대표한테 책임지라고 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일보 기자와 만나 "이번 영포회 논란은 일부 인사들의 국정 농단을 방치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2년 전 국정농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정두언 의원의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손을 들어줘 오늘 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권력 다툼 문제는 어느 정권에나 있으며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도 MK(목포·광주) 인맥의 권력독점 문제가 있었으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감하게 정리해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한나라 전대 이모저모

"돈봉투 돌렸다" 의혹 조사해 보니 '일당 지급'

한나라당 7·14 전당대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은 무더위 속에서도 1만여명에 달하는 대의원들이 참여,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이날 전당대회에는 박근혜, 정몽준 전 대표 등 대권 주자와 함께 당 소속 자치단체장, 청와대 인사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전 대표는 행사 시작인 오후 1시에 맞춰 대회장에 도착, 단상 맞은편 관람석에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대의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박 전 대표가 대회장에 도착하자 친박계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관용 경북지사 그리고 유승민·현기환·조원진 의원 등이 나와 맞았다.

또 이날 전대에는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박맹우 울산시장도 대회장에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박형준 정무수석과 정진석 정무수석 내정자가 나란히 단상에 앉았다. 민주당에서는 이미경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대회장 주변은 후보 측에서 내건 현수막으로 뒤덮여 또 다른 경쟁의 장이 됐다.

'2강'으로 평가되는 친이(친이명박)계 안상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각각 '경험과 경륜을 갖춘 정권재창출의 연금술사', '변화를 생각해도 화합을 생각해도 당대표는 홍준표'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친박(친박근혜)계 서병수 후보는 '박근혜의 선택'을 내세웠고, 나경원 후보는 '생각이 젊은 한나라당, 국민에게 매력적인 한나라당'이라고 강조했다.

정두언 후보는 '쇄신·개혁·단일후보', 김성식 후보는 '쇄신1등, 화합1등, 국민감동1 등, 김바마, 너를 믿는다', 김대식 후보는 '대의원의 혁명'이라는 문구를 각각 내세웠다.

○…전당대회 개막 직전 특정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대회장 밖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 클린경선감시단이 부랴부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남녀 대학생 20여명에게 5만원씩을 나눠주는 현장이 포착됐다는 것.

후보자 정견발표가 이뤄지는 동안 김무성 원내대표와 이범관 클린경선감시단장이 단상 뒤편에서 긴급회의를 갖는 등 한때 긴장감이 돌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표 매수'가 아닌 선거운동에 대한 '일당 지급'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 176석 거대 정당

미래희망연대와 합당안 의결

한나라당은 14일 전당대회에서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와의 합당 결의안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미래희망연대가 지난 4월2일 전당대회를 열어 한나라당과의 합당을 결정한 만큼 양당은 합당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석수는 미래희망연대의 8석을 추가, 기존 168석에서 176석으로 늘게 됐다. 또 지난 2008년 총선 공천파동으로 분리됐던 친박(친박근혜) 진영과의 물리적 결합이 완료됐다. 한나라당 이해봉 전국위의장은 "오늘의 합당으로 한나라당은 진정한 화합을 이루게 됐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정당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